

Establishment of Values and Recognition of Importance on Happy Education¹⁾

Kim, Soon Nam²⁾ (Shinhan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values of happy education and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values. The method of the study includes literature analysis, survey analysis, and interview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Value establishment: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happiness through many related papers and literatures, and established the values of happy education. These values are health, safety, relatedness, meaningfulness, achievement, engagement, appreciation, service, and forgiveness. 2.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values : This study surveyed the students, parents, staff, and teachers in regular Daegu schools and happy schools to question their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n the values of happy education with the Likert-type 5 scale. The importance of these values was rated very high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person safety is 4.8, object safety is 4.73, health is 4.70, affirmation is 4.69, consideration is 4.69, dream and hope is 4.69, communication is 4.64, self-regulation is 4.61, appreciation is 4.54, forgiveness is 4.50, engagement is 4.49, service is 4.49, creation is 4.49, and scholastic achievement is 4.32. This study shows the values of happy education, and that the importance recognition of these values is very high, I anticipate the values of happy education could be applied in Korean schools with positive effects.

Key Words : Happy, happy education, value of happy education, core value, additional value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KEDI CR 2015-01).

2) Corresponding Author: Kim, Soon Nam,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95 Hoam-Ro, Uijeongbu-Si, Gyeonggi-Do, Korea, 11644 / E-mail: ksn0620@shinhan.ac.kr

행복교육의 가치 설정 및 중요도 인식 분석¹⁾

김순남²⁾ (신한대학교, 교수)

< 요약 >

행복은 인간의 최고선이다. 학교교육은 인간의 최고선인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행복교육의 가치를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설정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이들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문헌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행복교육의 가치로 설정된 것은 핵심 가치(건강, 안전 관계, 긍정, 의미, 성취)와 부가적 가치(감사, 봉사, 용서, 몰입) 등이다. 이들 행복교육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에 대해 대구일반학교와 행복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행정직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가치의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대인안전(4.80), 시설안전(4.73), 건강(4.70), 의미의 꿈과 희망(4.69), 긍정(4.69), 관계의 배려(4.69), 관계의 소통(4.64), 의미의 자기조절(4.61), 감사(4.54), 용서(4.50), 몰입(4.49), 봉사(4.49), 창의성(4.32), 학업성취(4.32) 등이다. 이 연구는 행복교육의 가치를 보여 주는 것이고, 이들 가치들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국학교에서 행복교육의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행복, 행복교육, 행복가치, 핵심 가치, 부가적 가치

1) 이 연구는 2015년 대구광역시교육청 수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의 일부를 확대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KEDI CR 2015-01).

2) 교신저자: 김순남, 교수,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 E-mail: ksn0620@shinhan.ac.kr
논문투고일자: 2020. 10. 29 / 심사일자: 2020. 11. 2 / 게재확정일자: 2020. 11. 16

I. 서론

행복은 인간의 최고선으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라고 하였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정부의 최고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라 주장한다. 미국에서 토마스 제프슨이 행복추구권을 독립선언서에 포함시켰으며, 우리 나라 또한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경제성장에 몰두하여 경제 10위권 국가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살 률 1위, 이혼률 1위, 출산률 최저, 노인 행복도 최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행복도는 최저 수준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5년 메르스 사건,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행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행복 증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 제도의 변화가 중요함을 실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행복을 주장하던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로 다시 선회하면서 도리어 지나치게 경제에만 가치를 부여하여 인간 사회의 중요 가치인 행복이 무시되고 장기간 고착화되어 행복도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선진국은 경제만 성장한다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경제와 국민 행복이 균형되게 발전된 국가가 선진국이며, 우리나라 또한 행복한 선진대국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 개발에 힘 써야 할 때이다. 행복국가로의 점진적 변화는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복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각종 이론과 전략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복국가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접근 중 하나가 교육분야이다. 행복한 개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로 인해 교육의 실제적인 가치가 대학 입학에 맞추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 속에서 입신양명을 중 시하는 사회라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학벌 중심 의 사회는 세계적으로 대학진학률이 최고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심지어 대학입시가 유치 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오로지 좋은 대학을 나와 야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대학입시에 통과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어 버렸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설 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자유학기 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고 일부 교육청에서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행복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가치에 대한 탐색을 포함한 이론적 토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에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행복교육에 대한 대 주제를 다룬 바 있으나 발제들에서도 대부분 행복교육정책을 다루고는 있으나 행복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몇 편의 연구(Kim & Kim, 2013; Kim et al., 2015; Lee et al., 2013)가 이루어진 정도이고 후속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의 행복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최고선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명목적으로는 전인교육, 지덕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경쟁과 학벌주의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행복교육에 담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헌법으로 보장할 만큼 가치를 가지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도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을 교육함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육은 교육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행복교육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가치가 정립되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적,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어서 하는 지에 대해 문헌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 설정된 가치들에 대해 학교 주요 구성원들의 중요도 인식 정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행복 개념 분석, 행복교육의 가치 설정, 행복교육 가치의 중요도 조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개념 및 가치에 대한 문헌 분석과 중요도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 연구이다.

II. 행복 개념 분석

1. 행복에 대한 철학적 개념

행복은 동서고금을 통해 우리 인간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어이다. 여기서는 동서양 철학에서 행복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양철학에서 행복에 대한 관점은 전통적으로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는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보며,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인지적 상태로 정의한다. 따라서 쾌락주의 관점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인지적 만족을 행복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인 기분과 감정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는 즐거운 삶을 행복으로 본다(Kim et al., 2015). 반면, 자아실현적 관점에서는 행복을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개인적 성장과 발달, 도전과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Choi & Hyun, 2011). 즉, 자아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이란 감각적 쾌락과 만족감의 상태가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아 그와 일치하는 바람직한 삶 혹은 덕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개념은 탁월함에 이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성적인 힘으로 감각과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여 자신을 실현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그의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강조한 관조의 삶은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이 행위의 지침이 되어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완전하게 발휘되도록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Kim, 2009).

중세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살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영혼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행복의 초석으로 여겼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단지 삶에 있어 유용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못하므로 적어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을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신이 인간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선행된다고 주장한다(Kim & Yoo, 2014).

한편 칸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도덕과 충돌할 때 도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삶의 추구가 행복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칸트는 행복의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비판하며,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로서 의무로부터의 행위로서 이성적 도덕적 행복을 강조한다, 이성적 도덕적 행복은 소망의 대상으로서의 행복과 자기만족으로서의 행복으로 나날 수 있다. 칸트의 행복개념은 참된 만족, 자기만족으로 이 만족은 선의지로서의 최고선과 결합된 만족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만족, 즉 덕의 의식에 필연적으로 동반된 자기만족이다.

공리주의는 행복을 인간적 삶의 실천적 목적으로 보고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목적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있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은 자연 상태의 인류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관자의 지배하에 있고 이것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Song, 2009). 밀의 개인주의 행복을 주장하면서 자유를 행복의 유용한 수단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자유가 있어야 행복의 성취가 가능하고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ill, 1992).

행복에 대해 연구한 대표 철학자 러셀의 행복 개념을 살펴보면, 불행의 근본 원인을 사회제도와 개인의 심리 상태로 본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로 러셀은 전쟁, 경제적 착

취, 잔인과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제도, 결혼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as cited in Jeong, 2005). 러셀은 자기 침잠과 전념이 너무 강한 불행한 사람은 외적 훈련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 그의 생애를 지배한 세 가지 열정으로 사랑에의 갈망, 지식의 탐구, 인류의 고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을 들고 있고 러셀은 이러한 성찰을 통해 행복의 조건으로 애정, 열의, 가족, 흥미(비개인적 흥미), 관심, 사업(일), 노력과 체념을 들고 있다. 러셀은 행복은 찾아 나서서 정복해야 한다(as cited in Jeong, 2005). 러셀은 불행의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고,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사회적 제도나 심리적 상태를 극복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고통, 예를 들어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고통 등에 대한 깊은 사색이 부족하고 행복을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한편, 동양철학에서도 노자는 불운 옆에는 행복이 있고, 행운 옆에는 불운이 숨어있다고 하며, 행운과 불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고, 또는 불운과 행운이 하나라고 생각했다(Wang, 2010). 노자에게는 행복과 불행은 결국 같은 것이다. 행복 끝에 불행이 오고 불행 끝에 행복이 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즉 무엇이든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모든 원리의 원리인 도는 역동적으로 순환하고 도가 규정하는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이다(Wang, 2010). 노자는 지족불욕(知足不욕: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는다), 지족지족상족(知足知足常足: 만족할 줄 아는데 만족할 줄 알면 늘 만족할 수 있다)의 무욕철학을 주장하였다(Wang, 2010).

또한 장자는 지락무락(至樂無樂)이라고 하여 지극한 즐거움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완전한 행복은 행, 불행의 구별을 초월하고 생사의 구별도 초월하는 것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의 결집과 분산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고 삶과 죽음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행복과 불행을 똑같이 받아들이면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Wang, 2010).

유교의 두 대가인 공자와 맹자는 행복과 관련된 삼락을 제시하였다. 공자는 익자삼락(益者三樂)은 좋아해서 유익한 세 가지는 예약을 알맞게 지키고, 남의 덕을 칭찬하고, 어진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이다. 손자삼락(損者三樂)은 해로운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사치를 좋아하고, 놀기를 즐기고 잔치나 베풀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이러한 삶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여 삼가도록 경계하고 있다(Wang, 2010). 또한,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學以時習之면 不亦悅乎)라고 하였는데 이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학습을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증거이다. 한편 맹자는 군자삼락(君子三樂)을 제시했다.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가지 즐거움이라 하였다. 공자와 맹자의 즐거움은 단순히 지식을 알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를 좋아하는데서 더 가치

있는 만족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2.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

이 절에서는 심리학적으로 본 행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1960년에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행복과 만족감에 대한 국제적인 설문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한 연구물들이 행복 연구의 초기 고전이 되었다(Argyle, 2009). 1970년대 이후부터는 심리학 논문집에도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1990년대에는 미국의 프린스턴학회의 행복에 대한 현장연구 등 세계적인 행복에 대한 조사 결과와 다양한 연구물들이 출판되었다(Argyle, 2009).

마틴 셀리그만이 1998년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Peterson(2006)은 마틴 셀리그만이 기존의 심리학이 인간의 병리적 현상에만 관심을 두고 치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복, 긍정적 정서, 사랑, 몰입, 인간관계, 건강 등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총칭하는 우산용어(umbrella term)가 되었고 이러한 연구의 경향에 맥락과 체계를 부여 하여 심리학의 한 분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Peterson(2006)은 서양의 심리학 영역에서도 긍정심리학의 초석을 다진 사람으로 로저스와 매슬로우를 들고 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아 완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시킨 인본주의 심리학이 그것이다. Peterson(2006)은 매슬로우가 이미 1954년에 자신의 연구에 대해 긍정심리학이라고 명명했으나 그 이후 계속 사용하지 않고 1962년에 건강과 성장심리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셀리그만은 1998년에 다시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널리 쓰이게 되었다. 긍정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질병, 질환, 고통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미덕, 탁월함도 주어진다는 것이다.

Peterson(2006)은 긍정심리학이란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에 있어서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적 학문이며,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의 연구문제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문이다. 긍정심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세 개가 있다. 첫째는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이며, 둘째는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여기에는 긍정심리학의 핵심인 강점과 미덕은 물론 지능과 유동성 같은 개인의 능력까지 포함된다. 셋째는 긍정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미덕을 장려하고 그것이 다시 긍정적 정서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민주주의 사회, 유대감 깊은 가족, 자유로운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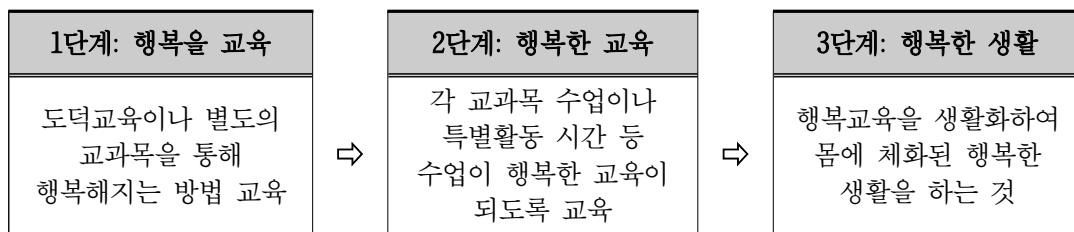
최근 Seligman(2011)은 그의 연구에서 웰빙(wellbeing being)의 확장 개념인 번성(flourishing)을 주장하고 그 구성요소로 긍정적 정서, 참여, 긍정적 관계, 의미, 성취를 제시하였다. 셀리그만은 기존의 행복이론과 자신의 새로운 웰빙이론을 다음의 <표 1>을 통해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 기존 행복이론과 새로운 웰빙이론의 비교

기존 이론		새로운 이론
주제	행복	웰빙
측정기준	삶의 만족도	P 긍정적 정서 (positive Emotion), E 몰입(Engagement) R 긍정적 관계(Relationships), M 삶의 의미(Meaning) A 성취(Accomplishment) * 셀리그만은 각 요소의 머리글자를 따서 다섯 가지 웰빙요소를 'PERMA' 라고 지칭하였다.
목표	삶의 만족도 증가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 긍정적 관계, 성취의 증가에 의한 플로리시의 증가

셀리그만의 웰빙이론에서 웰빙이란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정서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셀리그만이 그가 주장하는 웰빙과 기존의 진정한 행복 이론에서 주장하는 행복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셀리그만은 행복교육의 3단계 실천단계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행복을 교육(teaching it)하여 도덕이나 별도의 교과목을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 행복한 교육(embedding it)을 하는 단계로서 각종 교과목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수업이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행복한 삶(living it)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행복교육을 생활화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행복교육 개념과 3단계

Ⅲ. 행복교육의 가치 탐색

행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문헌 분석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행복과 행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핵심적 가치로는 건강, 안전(시설/대인), 긍정, 관계(소통/배려), 의미(꿈과 희망/자기조절), 성취(학업성취/창조) 등으로 설정하였고, 추가적인 가치로는 감사, 봉사, 용서, 몰입 등을 설정하였다. 핵심적 가치와 추가적 가치 등이 설정된 문헌 분석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핵심 가치

첫째,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며 육체적 건강이란 인체에 질병이나 상처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정신적 건강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병 발생과도 연관 있다고 본다. 국내연구에서는 Park et al.(2010)의 연구에서 건강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Abdel-Khalek(2006)는 정신적 건강이 행복의 주요 예측변수로 증명하였다. 행복,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독실함 등 4가지 평가영역의 내적 상관관계를 측정하였을 때, 행복과 정신적 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복을 예측하는 회귀분석 역시 정신적 건강에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종교적 신앙의 독실함(religiosity)이나 신체적 건강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정신적 건강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Abdel-Khalek, 2006). Wang & Wong(2011)의 연구 결과에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과 여가활동이었다.

둘째, 안전이란 위험이 없어서 피해를 입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안전에는 대인에 대한 안전과 대물에 대한 안전으로 나눌 수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Park et al.(2010)의 연구에서 안전과 보건의 순위로 평가되었고,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최하위로, 교육에서 최상위로 평가되었다(Park et al., 2010). 개성과 다양성이 없는 획일주의적인 교육 및 창의성과 탐구성이 결여된 시험성적과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이 또래 폭력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며 성적 부진과 또래 폭력 피해 경험 간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졌다(Gilbert et al., 2008; Kweon, 1997). 앞에 언급된 선행 연구는 안전이 행복(well-b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우울, 근심, 스트레스는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안전의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Gilbert et al., 2008).

셋째, 긍정은 Seligman이 행복에 관한 학문을 긍정심리학이라 명명할 정도로 행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이다. Fredrickson et al.(2000)은 긍정적 사고는 환경적 자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식 상태라고 정의한다. 긍정정서는 특정한 목적이 없거나 혹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비활동성과 연결되는 것과 같이 비특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Bandura(1977)는 긍정이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한다.

긍정적 사고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Oh(1998)는 긍정적 사고가 심리적 안녕 및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 사고는 현재의 긍정적 정서, 일반적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Caprara & Steca(2005)의 연구를 통해 긍정적 사고가 행복(쾌락적 균형,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rara & Steca, 2005).

한편 자아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Kim & Kim(2008)의 연구 결과에 학교생활 요인에 포함된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의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각 학생의 학교에서 행복 수준은 개인의 자기효능감, 교우관계와 더불어 그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 및 교실의 맥락이 서로 복합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적당한 정도의 긍정적 믿음은 학교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Csikszentmihalyi & Hunter(2003) 연구에서 기분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feeling good about self), 흥미 있는 상태(being excited), 활동적이고 강한 느낌(feeling active+strong), 사교적(sociable)인 것으로 나타났다(Csikszentmihalyi & Hunter, 2003). Caprara & Steca(2005)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자아효능감의 긍정적 정서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아효능감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행복의 관계 요소에는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의 의사소통과 타인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배려가 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을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며, 배려자의 관점에서 배려란 상대의 성장과 가능성의 실현을 돕는 것이다(Park, 2002)

소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Han(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교사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교사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교사와 촉진적 의사소통을 하고 자아탄력성

이 높은 아동이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아동에게 교사가 진실한 마음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는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게 형성될 수 있다. Kim & Kim(2013)에서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높은 점수로 응답한 학생일수록 자신에 대한 인정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하는 활동별로 고등학생이 느끼는 행복 점수를 측정한 Rathunde & Csikszentmihalyi(1991) 연구 결과에서 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의 행복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전화통화가 행복도가 다른 활동 때 느끼는 점수보다 가장 높았다. 행복도는 활동한 시간의 양과는 상관이 없었다(Rathunde & Csikszentmihalyi, 1991). Cohen(2001)의 연구결과는 유머가 기쁨과 특별히 행복을 끌어올리도록 만들어진 소통 도구(communication device)이며, 근심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의학 적 배경(medical settings)에서 소통/대화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2001).

배려에 대해 Lee(2013)의 연구 결과에서 배려심과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를 보면 배려심은 대인관계 능력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려심의 하위영역인 타인 심정 고려, 양보심, 대인관계 모두 대인관계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배려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보여 준다. 배려심의 하위요인 중 감정이해와 개방성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것은 남을 이해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긍정적 대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배려심이 영향이 크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arlivati(2001)에 따르면 좋은 교우관계는 긍정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높은 학교적응력 및 학업결과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준다.

다섯째, 의미란 삶에 있어서 개인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꿈과 목표로 설정하며 자기조절 하면서 생활해 가게 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실현해 가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Choi(2011)의 논문에 의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청소년과 성인에서 알코올, 담배 및 약물 사용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덜 관여하는 것(Harlow et al., 1986; Sayles, 1995)으로 보고되었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높은 사람은 정신적 안정성과 적응성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Elbersole & Kobayakawa, 1989; Kim, 1991; Yang, 1998), 개인적 좌절(Schafer, 1997), 우울 수준(Wright et al., 1993) 및 우울 수준(Kim, 1995; Song, 1975)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s cite in Choi, 2011).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행복, 성실함, 자존감, 적극적인 참여 및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높은 반면, 삶의 의미가 부족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고, 심각한 정신 병리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1). Csikszentmihalyi & Hunter(2003)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학교 과제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는 낮은 행복감을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공

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함으로써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학교 관련 활동은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Csikszentmihalyi & Hunter, 2003).

Song(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조절능력과 학교행복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인 모두 초등학생의 학교행복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 중 동기적 요인이 학교행복과 가장 상관이 높다고 밝혀졌다. Cheung et al.(2014)에서는 자제력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제력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가장 높았고, 행복에 대한 자제력의 직접적 영향은 긍정적이었다. 촉진동기는 긍정적으로, 예방초점은 부정적으로 행복을 예측하였고, 자제력이 두 조절 초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ung et al., 2014). Kaur & Kumar(2014)의 연구에서 자기조절과 행복의 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네 가지의 자기조절 영역(학문적, 친구 관계, 종교적, 친사회적) 중 학문적 자기조절과 행복의 관계가 가장 높았다.

여섯째, 성취란 학업이나 직업에서 목표로 한 바의 달성 정도를 나타낸다.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할 때 학업성취와 창의성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지적능력을 판단한다.

성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eo(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적과 학생들의 행복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 > 중 > 하에 따라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상위의 집단이 하위의 집단에 비하여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학업을 주 활동으로 하는 때이며 이 시기의 자신의 발전여부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한 관련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eo, 2009). Quinn & Duckworth(2007)의 연구는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이 IQ와 학업성적을 포함한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높은 학업성적이 학생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학업성적이 더 좋고,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ilman & Huebner, 2006; Verkuyten & Thijs, 2002).

창의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hoi(2013)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과 행복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은 주관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감을 더 많이 느끼므로 이것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창의성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여유 있고 대담하다(Cacha, 1976). 창의성이 높으면 일의 생산성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정서는 독창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 Scoffham & Barnes(2011)도 행복감은 창의적인 시도를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일의

완수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천으로 본다.

2. 부가적 가치

먼저 몰입이란 주어진 과제나 활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를 하여 끈기 있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마음으로부터 즐겁게 우러나 하는 것이며, 의무감과 경쟁심의 차원이 아닌 자신을 위한 순수한 집중과 몰입으로 즐겁게 해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몰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노력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와 의지가 있다. Oh(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적 몰입과 주관적 행복감, 정의적 몰입과 주관적 행복감, 그리고 학습몰입 전체와 주관적 행복감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정의적 몰입에 의해 설명되고 여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인지적, 정의적 모두를 포함한 학습몰입에 의해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는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을 갖고 있으며 보다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학습몰입과 긍정적 여가몰입은 스트레스가 많은 중학생의 학업부진, 우울, 불안감, 학교생활 부적응, 공격성, 문제행동 등을 줄이며, 이것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감사란 타인이나 사물에 의해 얻게 된 이익, 혹은 자연에 의한 평화로운 축복의 순간 등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고마움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마음상태를 뜻한다(Emmons, 2003). 감사는 오랜 역사에 걸쳐 여러 문화권에서 인간의 품성과 사회적 삶에 있어 기본적인 바람직한 덕목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감사는 만족감, 행복감, 자부심, 희망, 활기, 낙관성 등 긍정적 심리 상태와 관련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친사회적 행동을 자극하고, 공감 능력 및 조망 수용 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 봉사란 받들어 섬긴다는 뜻으로 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힘을 들여 그들을 돕는 것을 뜻한다. 봉사의 특성은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계속성, 복지성, 자아 실현성, 조직성, 교육성, 민주성이 있다. Yang(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 후 청소년들의 평균 행복감이 올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이 청소년의 내향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부심과 성취감이 높아졌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용서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을 뜻한다. 한 가지 분야의 접근만으로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며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as cited in Han, 2009; Kim,

1999). Seo(2010)는 용서편지 작성이 행복감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와 관련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Bae, 2003; Kim, 2004), 그리고 다양한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용서 처치, 중재 연구결과들(Kim, 2004; Oh, 2006)에 의하면 용서가 증진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리적 치료가 촉진되어 우울, 불안, 슬픔, 분노, 적대적 귀인, 부적응 등의 부정적 증상이 줄어들고, 희망, 자존감,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심장질환 및 혈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건강이 증진되는 긍정적 변화를 나타냈다(Kim, 2008). 용서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킴으로써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Seligman 긍정심리학 이론의 용서가 개인의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설정한 행복의 핵심적 가치와 부가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행복의 핵심적 가치와 부가적 가치

구분	가치
핵심적 가치	건강, 안전(시설/대인) 긍정, 관계(소통/배려) 의미(꿈과 희망/자기조절) 성취(학업성취/창조)
부가적 가치	감사, 봉사 용서, 몰입

IV. 행복교육 가치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

연구자는 대구 행복학교와 행복학교 외의 일반학교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교원, 행정직,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설정된 가치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행복학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14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행복학교 초등학생 4학년 625명과 중학생 1학년 112명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학교 학생은 초등학교의 경우 4개 교육청별로 2개 학교씩 무선 표집하여 8개 학교의 1,016명이었고,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별로 1개 학교씩 무선 표집하여 2개 학교의 161명이었다. 이 조사의 최종 대상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대구 초·중학교 행복에 대한 인식 조사

구 분	빈도(%)		계	구 분	빈도(%)		계
	일반학교	행복학교			일반학교	행복학교	
교원	320(60.7)	207(39.3)	527	행정직	71(50.7)	69(49.3)	140
학부모	1,077(63.7)	613(36.3)	1,690	초등학교 학생	1,016(61.9)	625(38.1)	1,641
중학교 학생	161(59.0)	112(41.0)	273	전체	2,645(61.9)	1,626(38.1)	4,271

<표 4>에서 평균적으로 가치 요인의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5점 만점에 중요도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과 건강으로서 대인안전이 4.8, 시설안전이 4.73, 건강이 4.70이다. 4.5이상 4.7이하로 반응한 것은 긍정이 4.69, 배려가 4.69, 꿈과 희망이 4.69, 소통이 4.64, 자기조절이 4.61, 감사가 4.54, 용서는 4.50 등이다. 마지막으로 4.0이상 4.5이하로 응답한 것은 몰입이 4.49, 봉사가 4.49, 창조는 4.49, 학업성취가 4.32 등이다.

<표 4> 행복 가치에 대한 응답집단별 중요도 인식 분석 결과

구분	빈도(%)					n	M	(SD)	χ^2 (p)	
	전혀	대체로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건강	교원	-	1(2)	7(1.3)	83(15.7)	436(82.8)	527	4.81	(.44)	117.168 (.000)
	행정직	1(7)	-	5(3.6)	23(16.4)	111(79.3)	140	4.74	(.60)	
	학부모	1(1)	6(4)	82(4.9)	198(11.7)	1,403(82.9)	1,690	4.77	(.55)	
	학생	3(2)	8(4)	141(7.4)	422(22.0)	1,340(70.0)	1,914	4.61	(.66)	
	전체	5(1)	15(4)	235(5.5)	726(17.0)	3,290(77.0)	4,271	4.70	(.59)	
시설 안전	교원	-	3(6)	22(4.2)	108(20.5)	394(74.4)	527	4.69	(.58)	21.810 (.040)
	행정직	-	-	8(5.7)	32(22.9)	100(71.4)	140	4.66	(.59)	
	학부모	1(1)	2(1)	70(4.1)	270(16.0)	1,347(79.7)	1,690	4.75	(.53)	
	학생	1(1)	11(6)	94(4.9)	288(15.0)	1,520(79.4)	1,914	4.73	(.58)	
	전체	2(-)	16(4)	194(4.5)	698(16.3)	3,361(78.8)	4,271	4.73	(.56)	
대인 안전	교원	-	2(4)	18(3.4)	80(15.2)	427(81.0)	527	4.77	(.52)	20.278 (.062)
	행정직	-	-	4(2.9)	22(15.7)	114(81.4)	140	4.79	(.48)	
	학부모	1(1)	3(2)	40(2.4)	185(10.9)	1,461(86.4)	1,690	4.84	(.45)	
	학생	4(2)	9(5)	71(3.7)	236(12.3)	1,594(83.3)	1,914	4.78	(.55)	
	전체	5(1)	14(3)	133(3.1)	523(12.2)	3,596(84.3)	4,271	4.80	(.51)	
긍정	교원	-	1(2)	9(1.7)	73(13.9)	444(84.4)	527	4.82	(.44)	140.974 (.000)
	행정직	1(7)	-	4(2.9)	19(13.6)	116(83.0)	140	4.78	(.56)	
	학부모	-	1(1)	47(2.8)	296(17.5)	1,346(79.6)	1,690	4.77	(.49)	
	학생	3(2)	13(7)	159(8.3)	441(23.0)	1,298(67.8)	1,914	4.58	(.69)	
	전체	4(1)	15(4)	219(5.1)	829(19.4)	3,204(75.0)	4,271	4.69	(.59)	
소통	교원	-	1(2)	7(1.3)	64(12.1)	455(86.4)	527	4.85	(.41)	139.716 (.000)
	행정직	-	-	4(2.9)	29(20.7)	107(76.4)	140	4.74	(.50)	

	학부모	1(1)	-	79(4.7)	349(20.7)	1,261(74.5)	1,690	4.70	(.56)	
	학생	5(3)	17(9)	174(9.1)	476(24.9)	1,242(64.8)	1,914	4.53	(.72)	
	전체	6(1)	18(4)	264(6.2)	918(21.5)	3,065(71.8)	4,271	4.64	(.63)	
배려	교원	-	1(2)	4(0.8)	51(9.7)	471(89.3)	527	4.88	(.36)	105.107 (.000)
	행정직	-	-	5(3.6)	27(19.3)	108(77.1)	140	4.74	(.52)	
	학부모	-	-	76(4.5)	345(20.4)	1,269(75.1)	1,690	4.71	(.55)	
	학생	-	14(7)	146(7.6)	401(21.0)	1,353(70.7)	1,914	4.62	(.66)	
	전체	-	15(4)	231(5.4)	824(19.3)	3,201(74.9)	4,271	4.69	(.59)	
꿈과 희망	교원	-	2(4)	13(2.5)	129(24.5)	383(72.6)	527	4.69	(.53)	54.152 (.000)
	행정직	-	-	11(7.9)	33(23.6)	96(68.5)	140	4.61	(.63)	
	학부모	1(1)	-	41(2.4)	353(20.9)	1,295(76.6)	1,690	4.74	(.50)	
	학생	1(1)	6(3)	123(6.4)	385(20.1)	1,399(73.1)	1,914	4.66	(.62)	
	전체	2(-)	8(2)	188(4.4)	900(21.1)	3,173(74.3)	4,271	4.69	(.56)	
자기 조절	교원	-	2(4)	13(2.5)	95(18.0)	417(79.1)	527	4.76	(.51)	102.497 (.000)
	행정직	-	-	8(5.7)	37(26.4)	95(67.9)	140	4.62	(.59)	
	학부모	1(1)	2(1)	53(3.1)	445(26.3)	1,189(70.4)	1,690	4.67	(.55)	
	학생	4(2)	10(5)	172(9.0)	514(26.9)	1,214(63.4)	1,914	4.53	(.70)	
	전체	5(1)	14(3)	246(5.8)	1,091(25.5)	2,915(68.3)	4,271	4.61	(.62)	
학업 성취	교원	1(2)	8(1.5)	104(19.7)	270(51.2)	144(27.4)	527	4.04	(.74)	194.789 (.000)
	행정직	-	1(7)	27(19.3)	58(41.4)	54(38.6)	140	4.18	(.76)	
	학부모	2(1)	4(2)	195(11.5)	683(40.4)	806(47.8)	1,690	4.35	(.70)	
	학생	12(6)	29(1.5)	258(13.5)	544(28.4)	1,071(56.0)	1,914	4.38	(.82)	
	전체	15(4)	42(1.0)	584(13.7)	1,555(36.4)	2,075(48.5)	4,271	4.32	(.77)	
창조	교원	1(2)	4(8)	35(6.6)	153(29.0)	334(63.4)	527	4.55	(.67)	73.319 (.000)
	행정직	-	-	13(9.3)	42(30.0)	85(60.7)	140	4.51	(.66)	
	학부모	1(1)	3(2)	116(6.9)	466(27.6)	1,104(65.2)	1,690	4.58	(.63)	
	학생	1(1)	28(1.5)	243(12.7)	571(29.8)	1,071(59.9)	1,914	4.40	(.77)	
	전체	3(1)	35(8)	407(9.5)	1,232(28.8)	2,594(60.8)	4,271	4.49	(.71)	
감사	교원	-	2(4)	26(4.9)	160(30.4)	339(64.3)	527	4.59	(.60)	41.238 (.000)
	행정직	-	-	14(10.0)	44(31.4)	82(58.6)	140	4.49	(.67)	
	학부모	1(1)	1(1)	113(6.7)	531(31.4)	1,044(61.7)	1,690	4.55	(.63)	
	학생	6(3)	14(7)	173(9.0)	492(25.7)	1,229(64.2)	1,914	4.53	(.72)	
	전체	7(2)	17(4)	326(7.6)	1,227(28.7)	2,694(63.2)	4,271	4.54	(.67)	
몰입	교원	-	4(8)	36(6.8)	203(38.5)	284(53.9)	527	4.46	(.66)	58.258 (.000)
	행정직	-	1(7)	19(13.6)	49(35.0)	71(50.7)	140	4.36	(.74)	
	학부모	1(1)	5(3)	135(8.0)	526(31.1)	1,023(60.5)	1,690	4.52	(.66)	
	학생	2(1)	21(1.1)	209(10.9)	488(25.5)	1,194(62.4)	1,914	4.49	(.74)	
	전체	3(1)	31(7)	399(9.3)	1,266(29.6)	2,572(60.3)	4,271	4.49	(.70)	
봉사	교원	-	1(2)	35(6.6)	180(34.2)	311(59.0)	527	4.52	(.63)	74.315 (.000)
	행정직	-	-	11(7.9)	46(32.9)	83(59.2)	140	4.51	(.64)	
	학부모	1(1)	3(2)	121(7.2)	583(34.5)	982(58.0)	1,690	4.50	(.64)	
	학생	4(2)	29(1.5)	210(11.0)	490(25.6)	1,181(61.7)	1,914	4.47	(.77)	
	전체	5(1)	33(8)	377(8.8)	1,299(30.4)	2,556(59.9)	4,271	4.49	(.70)	
용서	교원	-	2(4)	34(6.5)	183(34.7)	308(58.4)	527	4.51	(.63)	32.651 (.001)
	행정직	-	-	14(10.0)	40(28.6)	86(61.4)	140	4.51	(.67)	

학부모	1(1)	5(3)	141(8.3)	502(29.7)	1,041(61.6)	1,690	4.52	(.66)
학생	7(4)	23(1.2)	189(9.9)	530(27.7)	1,165(60.8)	1,914	4.47	(.75)
전체	8(2)	30(7)	378(8.9)	1,255(29.4)	2,600(60.8)	4,271	4.50	(.70)

<표 5> 행복 가치에 대한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간 중요도 분석

학교	통계치 응답자	일반			행복			계			t (p)
		n	M	(SD)	n	M	(SD)	n	M	(SD)	
건강	교원	320	4.82	(.44)	207	4.80	(.43)	527	4.81	(.44)	.350(.726)
	행정직	71	4.76	(.52)	69	4.71	(.67)	140	4.74	(.60)	.500(.618)
	학부모	1,076	4.80	(.52)	613	4.73	(.60)	1,690	4.77	(.55)	2.459(.014)
	학생	1,177	4.65	(.62)	737	4.56	(.71)	1,914	4.61	(.66)	3.024(.003)
	전체	2,645	4.73	(.56)	1,626	4.66	(.64)	4,271	4.70	(.59)	3.926(.000)
시설 안전	교원	320	4.70	(.58)	207	4.69	(.58)	527	4.69	(.58)	.118(.906)
	행정직	71	4.73	(.51)	69	4.58	(.65)	140	4.66	(.59)	1.552(.123)
	학부모	1,076	4.77	(.53)	613	4.71	(.54)	1,690	4.75	(.53)	2.240(.025)
	학생	1,177	4.78	(.52)	737	4.66	(.65)	1,914	4.73	(.58)	4.275(.000)
	전체	2,645	4.76	(.53)	1,626	4.68	(.60)	4,271	4.73	(.56)	4.742(.000)
대인 안전	교원	320	4.80	(.48)	207	4.72	(.57)	527	4.77	(.52)	1.735(.083)
	행정직	71	4.90	(.35)	69	4.67	(.56)	140	4.79	(.48)	2.996(.003)
	학부모	1,076	4.85	(.45)	613	4.81	(.45)	1,690	4.84	(.45)	1.698(.090)
	학생	1,177	4.82	(.49)	737	4.71	(.62)	1,914	4.78	(.55)	4.304(.000)
	전체	2,645	4.83	(.47)	1,626	4.75	(.67)	4,271	4.80	(.51)	5.316(.000)
공정	교원	320	4.84	(.43)	207	4.80	(.46)	527	4.82	(.44)	1.032(.302)
	행정직	71	4.77	(.48)	69	4.78	(.64)	140	4.78	(.56)	-.083(.934)
	학부모	1,076	4.77	(.49)	613	4.76	(.49)	1,690	4.77	(.49)	.557(.578)
	학생	1,177	4.61	(.64)	737	4.52	(.75)	1,914	4.58	(.69)	2.959(.003)
	전체	2,645	4.71	(.56)	1,626	4.66	(.63)	4,271	4.69	(.59)	2.905(.004)
소통	교원	320	4.85	(.40)	207	4.84	(.42)	527	4.85	(.41)	.474(.635)
	행정직	71	4.76	(.49)	69	4.71	(.52)	140	4.74	(.50)	.591(.555)
	학부모	1,076	4.73	(.52)	613	4.63	(.61)	1,690	4.70	(.56)	3.596(.000)
	학생	1,177	4.57	(.68)	737	4.48	(.77)	1,914	4.53	(.72)	2.711(.007)
	전체	2,645	4.68	(.60)	1,626	4.59	(.68)	4,271	4.64	(.63)	4.259(.000)
배려	교원	320	4.88	(.37)	207	4.88	(.36)	527	4.88	(.36)	.160(.873)
	행정직	71	4.76	(.52)	69	4.71	(.52)	140	4.74	(.52)	.575(.566)
	학부모	1,076	4.72	(.51)	613	4.68	(.60)	1,690	4.71	(.55)	1.542(.123)
	학생	1,177	4.64	(.63)	737	4.58	(.70)	1,914	4.62	(.66)	2.070(.039)
	전체	2,645	4.71	(.56)	1,626	4.66	(.63)	4,271	4.69	(.59)	2.542(.011)
꿈과 희망	교원	320	4.67	(.56)	207	4.73	(.49)	527	4.69	(.53)	-1.378(.169)
	행정직	71	4.68	(.60)	69	4.54	(.66)	140	4.61	(.63)	1.314(.191)
	학부모	1,076	4.74	(.50)	613	4.74	(.49)	1,690	4.74	(.50)	.271(.786)

	학생	1,177	4.67	(.60)	737	4.65	(.65)	1,914	4.66	(.62)	.730(.466)
	전체	2,645	4.70	(.56)	1,626	4.69	(.57)	4,271	4.69	(.56)	.673(.501)
자기 조절	교원	320	4.77	(.50)	207	4.75	(.52)	527	4.76	(.51)	.373(.709)
	행정직	71	4.68	(.56)	69	4.57	(.63)	140	4.62	(.59)	1.106(.271)
	학부모	1,076	4.67	(.56)	613	4.67	(.53)	1,690	4.67	(.55)	-.149(.882)
	학생	1,177	4.55	(.67)	737	4.49	(.74)	1,914	4.53	(.70)	1.815(.070)
	전체	2,645	4.63	(.61)	1,626	4.59	(.64)	4,271	4.61	(.62)	1.661(.097)
학업 성취	교원	320	4.07	(.71)	207	4.00	(.79)	527	4.04	(.74)	1.115(.265)
	행정직	71	4.18	(.78)	69	4.17	(.75)	140	4.18	(.76)	.071(.943)
	학부모	1,076	4.35	(.68)	613	4.35	(.73)	1,690	4.35	(.70)	.022(.982)
	학생	1,177	4.39	(.79)	737	4.35	(.87)	1,914	4.38	(.82)	1.082(.280)
	전체	2,645	4.33	(.74)	1,626	4.30	(.81)	4,271	4.32	(.77)	1.373(.170)
창조	교원	320	4.49	(.68)	207	4.64	(.65)	527	4.55	(.67)	-2.523(.012)
	행정직	71	4.51	(.69)	69	4.52	(.63)	140	4.51	(.66)	-.131(.896)
	학부모	1,076	4.60	(.61)	613	4.54	(.66)	1,690	4.58	(.63)	1.759(.079)
	학생	1,177	4.39	(.76)	737	4.43	(.78)	1,914	4.40	(.77)	-1.157(.248)
	전체	2,645	4.49	(.70)	1,626	4.50	(.72)	4,271	4.49	(.71)	-.601(.548)
감사	교원	320	4.56	(.63)	207	4.63	(.56)	527	4.59	(.60)	-1.423(.155)
	행정직	71	4.41	(.71)	69	4.57	(.63)	140	4.49	(.67)	-1.382(.169)
	학부모	1,076	4.53	(.64)	613	4.58	(.59)	1,690	4.55	(.63)	-1.720(.086)
	학생	1,177	4.54	(.68)	737	4.50	(.77)	1,914	4.53	(.72)	1.242(.215)
	전체	2,645	4.54	(.66)	1,626	4.55	(.68)	4,271	4.54	(.67)	-.776(.438)
몰입	교원	320	4.46	(.63)	207	4.45	(.70)	527	4.46	(.66)	.172(.863)
	행정직	71	4.38	(.70)	69	4.33	(.78)	140	4.36	(.74)	.374(.709)
	학부모	1,076	4.52	(.65)	613	4.51	(.68)	1,690	4.52	(.66)	.323(.747)
	학생	1,177	4.50	(.72)	737	4.47	(.77)	1,914	4.49	(.74)	.749(.454)
	전체	2,645	4.50	(.68)	1,626	4.48	(.73)	4,271	4.49	(.70)	1.003(.316)
봉사	교원	320	4.49	(.64)	207	4.56	(.61)	527	4.52	(.63)	-1.190(.235)
	행정직	71	4.46	(.71)	69	4.57	(.56)	140	4.51	(.64)	-.927(.355)
	학부모	1,076	4.49	(.65)	613	4.53	(.62)	1,690	4.50	(.64)	-1.116(.265)
	학생	1,177	4.48	(.76)	737	4.46	(.78)	1,914	4.47	(.77)	.426(.670)
	전체	2,645	4.48	(.70)	1,626	4.50	(.69)	4,271	4.49	(.70)	-.853(.394)
용서	교원	320	4.48	(.65)	207	4.57	(.61)	527	4.51	(.63)	-1.541(.124)
	행정직	71	4.51	(.72)	69	4.52	(.63)	140	4.51	(.67)	-.129(.898)
	학부모	1,076	4.51	(.66)	613	4.54	(.67)	1,690	4.52	(.66)	-.947(.344)
	학생	1,177	4.49	(.74)	737	4.46	(.77)	1,914	4.47	(.75)	.752(.452)
	전체	2,645	4.50	(.69)	1,626	4.51	(.71)	4,271	4.50	(.70)	-.496(.620)

<표 5>에서 보듯이, 건강 가치에 대한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하위 집단 간의 반응은 학부모와 학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교원과 행정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부모와 학생 두 집단에서 일반학교가 행복학교보다 건강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안전 가치에 대한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하위 집단 간의 반응은 학부모와 학

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교원과 행정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부모와 학생 집단 모두에서 행복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시설 안전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 안전에 대한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하위 집단 간의 반응은 행정직과 학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교원과 학부모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직과 학생 집단 모두에서 행복학교가 일반학교 보다 대인 안전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긍정 가치에 대한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하위 집단 간의 반응은 학생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다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 집단에서 일반학교가 행복학교보다 긍정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 중 소통 가치는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하위 집단 간의 반응은 학부모와 학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교원과 행정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부모와 학생 집단 모두에서 일반학교가 행복학교보다 소통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려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하위 집단 간의 반응은 학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다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 집단에서 일반학교가 행복학교보다 배려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복교육 핵심 가치로서 창조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하위 집단 간의 반응은 교원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다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원 집단에서 행복학교가 일반학교 보다 창조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복교육 가치로서 꿈·희망 가치와 자기조절, 학업성취에 대한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하위 집단 간의 반응은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복교육 추가적 가치로서 감사, 몰입, 봉사, 용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자별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집단 간의 반응은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행복교육 가치에 대한 중요도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일반학교나 행복학교에서 중요도 인식 분석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일반학교나 행복학교보다 높다거나, 행복학교가 일반학교 보다 높다는 결과를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복학교 운영 3년차 초기 단계라서 행복학교와 일반학교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특색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해당교육청에서 행복학교를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지정하여

행복한 학교교육을 통해 학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특수 상황도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인간의 최고선이다. 학교 교육은 인간의 최고선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학교 행복교육의 가치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들 가치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교육 가치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이들 가치로 설정된 것은 건강, 안전, 관계, 긍정, 의미, 성취, 감사, 봉사, 용서, 몰입 등이다. 선행 여섯 개는 핵심 가치로 후속 네 개 가치는 수단적 가치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물어보았다. 안전은 대인안전과 시설안전으로 의미는 꿈과 희망과 자기조절로, 관계는 배려와 소통, 성취는 학업성취와 창의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가치들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중요도는 대인안전(4.80), 시설안전(4.73), 건강(4.70), 의미의 꿈과 희망(4.69), 긍정(4.69), 관계의 배려(4.69), 관계의 소통(4.64), 의미의 자기조절(4.61), 감사(4.54), 용서(4.50), 몰입(4.49), 봉사(4.49), 창의성(4.32), 학업성취(4.32) 등의 순이다. 설정된 행복교육 가치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이미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요인들 중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선행적으로 검증된 가치들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당교육청이 운영하는 행복학교와 일반학교에서 가치 중요성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정도에 공통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행복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해당교육청에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되다 보니 행복가치들에 집중하는 교육에 초점 맞추지 못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연구는 행복교육의 가치 설정 및 중요도 인식을 중심으로 한 행복교육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행복교육에 대한 가치 설정과 이들의 중요도 인식조사는 2014년에 당시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인식조사도 한 개 광역시의 학교를 대상으로 것이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향후 더 확장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행복교육으로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이 연구를 통해 설정된 가치들이 행복교육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과정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복교육 방법적인 면에서 학교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행복하게 가르치고, 행복이 체화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넷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행복역량이라 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서 행복역량을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결국 행복교육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가치들을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행복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bdel-Khalek, A. M. (2006). Happiness, health, and religiosity: Significant relation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9(1), 85-97. <https://doi.org/10.1080/13694670500040625>
- Argyle, M. (2009). *The psychology of happiness*. (D. G. Kim, & O. M. Kim,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국문: Argyle, M. (2009). **행복심리학** (김동기, 김은미 공역). 행복심리학. 학지사. (원서출판 2001).
- Bae, M. J. (2003).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 국문: 배미자 (2003). **부부갈등 대처 및 용서와 결혼만족도**. 석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Caprara, G. V., & Steca, P. (2005). Affective and social self-regulatory 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ositive Thinking and Happiness. *European Psychologist*, 10(4), 275-286.
- Carlivati, J. (2001). *Adolescent attachment, peer relationships, and school success: Predictor, mediator, and moderator relations*. Distinguished Majors Thesis University of Virginia.
- Cheng, H., & Furnham, A. (2003). Attributional style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307-327.
- Cheung, T. L., Gillebart, M., Kroese, F., & Ridder, D. D. (2014). Why are people with high self-control happier? The effect of trait self-control on happiness as mediated by regulatory focus. *Frontiers in Psychology*, 5, 1-6. <https://doi.org/10.3389/fpsyg.2014.00722>
- Choi, M. K. (2013).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creativity and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buk University. ☞ 국문: 최민경(2013). **창의성과 행복 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 Choi, M. S. (2011).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mental health, perceived social support &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ccording to purpose in life.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16(2), 363-377. ☞ 국문: 최명심(2011). 삶의 의미 수준과 자존감,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및 정신 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2), 363-377.
- Choi, S. J., & Hyun J. S. (2011).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youth's happiness. *Forum for Youth Culture*, 27, 180-207. ☞ 국문: 최순중, 현정수(2011). 청소년 행복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27, 180-207.
- Cohen, M. (2001). Happiness and humor. *Australian Family Physician*, 30(1), 17-19.

- Csikszentmihalyi, M., & Junter, J. (2003). Happiness in everyday life: The uses of experience samp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 185-199. <https://doi.org/10.1023/A:1024409732742>
- Fredrickson, B. L., Mancuso, R. A., Branigan, C., & Tugade, M. (2000). The undoing effect of positive emotions. *Motivation and Emotions*, 24(4), 253-258. <https://doi.org/10.1023/a:1010796329158>
- Gilbert, P., McEwan, K., Mitra, R., Franks, L., Richter, A., & Rockliff, H. (2008). Feeling safe and content: A specific affect regulation system? Relationship to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self-criticism.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Dedicated to Furthering Research and Promoting Good Practice*, 3(3), 182-191.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311-319.
- Han, Y. M. (2009) *The effects of forgiveness education on the aggress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국문: 한영미(2009). **용서교육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 Han, J. A. (2013).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children and school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국문: 한정아(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Heo, Y. S., (2009). *(A) Study on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국문: 허영선(2009).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Jeong, I. H. (2005). Why humans are unhappy?. *Journal of Humanities*, 9, 347-363. ㉮ 국문: 정인화(2005). **인간은 왜 불행한가?**. *인문학연구*, 9, 347-363.
- Kaur, B., & Kumar, S. (2014). A Study of self-regulation in relation to happiness among sighted and visually impaire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Education Research*, 3(3), 940-946.
- Kim, E. W., & Yoo, J. B. (2014). Happiness as aim of education: Focusing on happiness conception of Augustinus. *Church Social Work*, 25(3), 7-34. ㉮ 국문: 김은우, 유재봉 (2014). **교육의 목적으로서 행복**. *교회사회사업*, 25(3), 7-34.
- Kim, K. S. (1999).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forg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광수(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Kim, K. S. (2004). Reflective inquiry on empirical-scientific studies of forgiveness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forgiveness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4), 33-49. ☞ 국문: 김광수(2004). 경험과학적 용서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심리연구, 18*(4), 33-49.
- Kim, K. S. (2008). *Counseling program for forgiveness*. Hakjisa. ☞ 국문: 김광수(2008). **용서상담 프로그램**. 학지사.
- Kim, M. J. (2009). *Concept of happiness in Aristotle's eth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미진(2009).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행복 개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Kim, M. S., & Kim, J. M. (2013). *21st century global trends in education reform (1) : ducation for happines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 (RR 2013-17). ☞ 국문: 김미숙, 김종민(2013).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I): 행복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RR 2013-17).
- Kim, S. N., Kim, M. S., Kim, J. G., & Kim, S. H. (2015). *A study on development the models of management and evaluation on the Daegu-happy schoo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R 2015-01). ☞ 국문: 김순남, 김미숙, 김진규, 김신희(2015). 대구행복학교 운영 및 평가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 2015-01).
- Kim, J. B., & Kim, T. E.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school happin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1). 258-279. ☞ 국문: 김종백, 김태은(2008). 학교 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2*(1). 259-279.
- Kweon, L. J. (1997). Background of occurrence and teaching method on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7*(3), 81-101. ☞ 국문: 권이중 (2006). 학교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도방법. *교육사회학연구, 7*(3). 81-101.
- Lee, S. H. (2013). *The effect of consideration on 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violence toler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이상호(2013). **배려심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학교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Lee, H. Y., Na, B. H., & Kim, M. J. (2013). *An exploration on school model for happy education implement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R 2013-8). ☞ 국문: 이해영, 나병현, 김민조(2013).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모형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OR 2013-8).
- Mill J. S. (1992). *On Liberty* (H. C. Kim, Trans.). Seakwa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859). ☞ 국문: Mill J. S. (1992). **자유론** (김형철 역). 서광사. (원서출판 1859).

- Oh, H. M. (1998).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think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 국문: 오화미(1998).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Oh, H. S. (2010). *Influence of learning flow and leisure flow upon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국문: 오희숙(2010). **학습몰입과 여가몰입이 중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Oh, Y. H. (2006). Survey of hurt and forgiveness of Korean peopl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2), 467-486. ㉮ 국문: 오영희(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 Park, B. C. (2002). *Ethics of care and moral education*. Ullek. ㉮ 국문: 박병춘(2002). **배려 윤리와 도덕 교육**. 울력.
- Park, J. I., Park C. U., Seo, H. J., & Youm, Y. S. (2010).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Journal of Korean Sociology, 44*(2), 121-154. ㉮ 국문: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Y. L. Moon, I. J. Kim, & S. H. Baek, Trans.). Mulpule.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국문: Peterson C. (2006). **긍정심리학 프라이머** (문용린, 김인자, 백수현 공역). 물푸레. (원서출판 2006).
- Quinn, P. D., & Duckworth, A. L. (2007). *Happi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Evidence for reciprocal causality*. In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 Rathunde, K., & Csikszentmihalyi, M. (1991). Adolescent happiness and family interaction. In K. Pillemer, & K. McCart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Erlbaum.
- Seligman, M. E. P. (2009).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I. J. Kim, Trans.). Mulpule.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국문: Seligman, M. E. P. (2009). **긍정심리학** (김인자 역). 긍정심리학. 물푸레. (원서출판 2004).
-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Free Press.
- Seo, E. J. (2010).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writing appreciation letters and forgiveness letters upon high school students' happiness enhanc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국문: 서은정(2010). **감사편지와 용서편지 작성성이 고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Song, H. J. (2009). *A study on J. S. Mill's utilitaria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국문: 송현주(2009).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Song, H. M. (2013).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regul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chool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송현미(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행복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Verkuyten, M., & Thijs, J. (2002) Racist victimization among children in the Netherlands: The effect of ethnic group and school. *Ethnic and Racial Studies*, 25(2), 310-331.
- Wang, K. P. (2010). *The discovery of happiness*. (S. H. Kim, Trans.). Humanist.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국문: Wang, K. P. (2010). **행복의 발견**. (김석희 역). 휴머니스트. (원서출판 2002).
- Wang, M., & Wong, M. C. S. (2011). Leisure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survey data. *Applied Economics Letters*, 18(18), 1813-1816.
- Yang, J. S.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voluntary service learning program on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양정숙 (2012).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 프로그램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